

油價 설정방식의 전환 모색하는 OPEC 산유국

최근 일부 OPEC(석유수출국기구) 산유국들은 原油輸出價 설정방식을 변경했거나 변경할 의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1일부터 정부승인가격제도(GASP)를 포기, 기준유종 미나스원유 판매가를 該當市場 5大油種 現物價에 기초하는 多量現物連動方式로 전환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對美輸出價 설정방식을 ANS現物價 연동방식에서 탈피, 製品現物價 연동방식의 도입을 모색중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기타 非 OPEC산유국에게도 연쇄波及,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가 신규 도입한 가격설정방식은 미나스·오만·두바이·말레이시아 타피스·호주 Gippsland의 平均現物價를 바스킷으로 구성, 자국산 원유판매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바스킷제도는 향후 6개월간 시험기간을 거쳐 채택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며, 바스킷連動價는 매달 16日 고시, 차월 15일까지 1개월간 적용된다.

新價格방식 도입배경은 인도네시아 內 PSC(Production-Sharing Contracts)의 지분원유 판매조세기준이 GASP에 기준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稅負擔을 완화시키는 한편 구매자에게 市場價値에 접근한 가격을 적용키 위한 것이다. 또한, 이는 외국기업의 유전탐사·개발조치에 있어 88년도 PSC조항 개정 이후 또 하나의 합작투자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간주된다. GASP는 통상 기타 산유국의 同級 原油價보다 1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에서 고시되어 왔었다.

신규가격제도는 도입초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적용된 미나스의 바스킷價格은 배럴당 18.21달러로 4월 13일 미나스自體 18.15달러보다 높게 나타났다. 페르시아灣 OPEC 산유국은 對極東 원유 판매와 관련, 인도네시아의 多種連動價방식의 성공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對美수출가 설정을 ANS 現物價에 연동시키고 있으나, 이를 製品現物價 연동방식으로 전

환할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原油現物價 연동방식의 단점은 가격설정시기(Price Timing)가 선적당일부터 멀리는 45일만에 걸쳐 있기 때문에 該當基準油種(ANS, 브렌트, 오만, 두바이)의 가격변동추세를 즉시 반영치 못하는 것이다.

製品價連動방식의 장점은 수출원유가의 산정을 정제 가치에 보다 근접시킴으로써 현물원유가의 비정상적인 변동에서 야기될수 있는 매매자 양측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製品現物價 연동방식 구상은 지역 현물시장에서 低·高硫黃粉을 갖는 두 油種의 GPV(Gross Product Value: 總生產物價)를 산정, 두 유종간 GPV차 이내에서 조정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美國 걸프만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WTI(API 40°)와 ANS(API 27°) 原油間 月初 GPV幅이 1.5달러에서 月末에 2달러로 확대될 경우 사우디는 上記 두 유종의 月間 spread 0.5달러에 대하여 적절한 할인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정제제품 현물가연동 방식은 對極東 및 유럽가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라크는 ANS 單一油種 연동방식에서 WTI 혹은 WTI, WTS를 추가시키는 두 가지 多種連動판매 방안을 제시, 구매자가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리비아는 對유럽판매에 있어 판매가의 50%를 네트백價値에 준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있으나, 自國產 全油種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제제품의 가중치를 부여한 새로운 표준 네트백가격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고급휘발유 20%, 나프타 4%, 제트유 11%, 경유 25% 및 低硫黃 연료유 36%의 收率을 반영하며, 정제비 및 운임에 대하여 톤당 3달러를 차감하는 가격방식이다. 특히, 上·下限價의 설정도 포함되어 있다. 최종 방안은 구매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그 시기와 내용은 유동적이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동향 · 1989. 5. 1>